◈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김은호 편집국장 : 조선근

귀국하는 단기선교팀들

복음 전파의 열망이 계속되기를

9월 3일에 선교보고대회 가질 예정

지난 29일(수) 스리랑카팀이 귀국한 데 이어 이번 주 3일(월)과 4일(화)에는 각각 인도팀과 몽골팀이 귀국한다. 무더운 여름에 살을 태우는 더위, 그리고 악한 영의 방해와 맞서 싸우며 복음을 전하느라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는 이 선교팀들을 위해 성도들은 마음 시원한 격려와 위로로 이들을 맞아야 하겠다. 특히 이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교적 열망을 키워가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들 중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선교 현지에 머물면서 좀 더 전문화된 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단기선교사들로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교적 열기는 앞으로 7천명의 젊은이들이 단기선교를 위해 훈련을 받고 파송되는 일들에 큰 동기와 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선교적 비전의 실현을 돕기 위해 선교위원회에서는 9월 3일(목)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충현의 성도들을 초청하여 98단기선교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단기선교팀들 중 몇몇 팀들은 금번 단기선교사역에서 얻어진 선교적 열기와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겨울 단기선교를 꿈꾸며 준비하거나, 팀을 해체하지 않은 채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짐으로써 선교의 씨앗들로 꾸준히 준비해가고자 애를 쓰고 있다.

특히 금번 단기선교 사역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실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과의 연관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의 가능성이었다. 그동안 선교위원회에서 지속해온 외국인 근로자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근로자의 본국 가족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선교팀들을 맞이했던 것이다. 아무쪼록 충현의 성도들은 올 여름에 실시되고 있는 단기선교 사역의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하겠다.

중국2팀
98 단기선교 마지막 주자로

금년 여름 단기선교 마지막 주자인 중국2팀(단장 이갑재 장로, 지도 조문찬 목사, 대원 허용구 전도사 외 11명- 대원들 중 4명은 고등부 학생)이 이번주 7일(금)에 출발하여 13일(목)까지 중국 S시에서 단기선교사역을 감당한다. 중국2팀은 그동안 금번 단기선교를 위해 모든 대원들이 연속 금식기도를 실시해 왔으며 선교에 대한 다각적인 공부를 나누고 전도를 위한 중국어 40문장을 암기해 왔다. 그리고 중국어로 부르는 찬양 연습도 잊지 않았다. 충현의 성도들은 중국2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 따르도록, 준비시키신 영혼들을 수월히 만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모든 대원들이 하나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매순간 담대하도록, 그리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다.

98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8월 16일 실시

8월 2, 9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8월 16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1998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이 8월 16일 찬양예배시에 거행된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해당교구 교역자들에게 신청하여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교육과 문답에 참여한 후 학습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천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8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4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5:50~16:3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8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부서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

이제 고등부(8월 3-6일)와 청년2부(8월 13-15일) 그리고 예바다부 성인반(8월 14-15일)을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여름 수련회 및 성경학교들이 마쳐졌다.

모든 부서들의 행사들은 해당 학생들의 연령적, 영적 특성에 맞추어 배려된 행사들로 진행됨으로 학생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중등부각 부서는 학생들의 영적 필요에 적절하게 맞춘 특화된 행사들을 실시함으로 교육의 중복투자에 따르는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중등1부는 말씀 통독 수련회를 통해 신구약의 주요 성경들을 통독하면서 말씀 사랑 프로그램을 진행시켰고, 중등2부는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에서 1박 2일을 함께 지내면서 온 몸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움직이는 신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중등3부는 찬양의 의미와 목적과 실천을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가르치고 행하는 찬양수련회를 가짐으로 고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하나님 찬양의 진수를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은 전체적인 체계를 적절히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학년이 변함에 따라 나선형으로 발전해가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일정한 전형에 따라 움직이는 틀에 맞춘 행사들로 식상해가는 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하겠다. (사진 / 수련회에서 말씀을 통독하는 중등1부 학생들.)

농어촌전도대
금주에 7개팀 출발

이제 농어촌전도대들이 흘리는 여름의 땀도 반 이상이 흘렀다. 이미 26개팀들이 농어촌전도를 다녀왔고, 금주에도 7개팀이 농어촌과 낙도 오지를 향해 떠난다. 이번 주에 떠나는 팀들은 1, 2, 5교구를 비롯하여 대학부의 시심나와 봉공방, 그리고 청년1부의 5, 6팀 등이다. 이들이 가는 지역들은 강원도 원주, 평창과 충북 음성, 조치원, 전북 남원, 그리고 경남 한산과 통영 등이다. 남모르는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전도지와 성경학교 교재를 만드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지체들을 위해 남은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의 무릎으로 동역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겠다. (사진 / 15교구의 농어촌전도 사역. 이미용 사역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충현소석장학금 신청안내

1998년도 전반기에 충현소석 일반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중 · 고 · 대 · 대학원 및 신학원생들의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는다. 장학생 청원서는 교육국(교육관 103호)에 비치되어 있다.

- 제출서류 : 장학생 청원서, 학업계획서, '9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서류마감 : 1998년 8월 9일(주일)
- 문의 : 교육국의 장학회 담당자

김 창 인 목사

선민이 환난받을 때에 취할 태도

(이사야 26:16-21)

"환난은 자신의 잘못으로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더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성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선민이 왜 환난을 받으며, 또한 환난을 받을 때에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선민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고 고통과 환난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천지이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선한 것들을 악하게 이용하며 모든 아름다운 것을 더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워진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할 수 없이 세상 만민이 당하는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신의 잘못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 잘못의 첫째는 교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 잘 믿다가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잘한 것들을 잔뜩 내어 놓는 교만한 자에게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두번째 잘못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일을 하나 시작하여 잘 되고, 또 하나 시작하여 성공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주님 없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번째 잘못은 남의 사정을 모르는 개인주의입니다. 내 배만 부르면 종의 밥은 하지 말라하는 식으로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애를 써도 자기에게 직접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척 하는 개인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환난을 주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환난이 오는 것은 장차 더 큰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수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으므로 사람을 믿지도 말고 또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 원인을 꼭 살펴 보아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이 없으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만나 괴로움을 겪지만 결과는 기쁨과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 선민이 환난을 당할 때에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1) 환난을 당할 때에는 주를 앙모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16, 17절)

환난을 당했을 때 공연히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임산하는 여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듯이 기도를 쏟아 놓아야 합니다.

(2)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18절)

'우리가 잉태하고'는 '마음 속에 큰 뜻을 품고 혹은 마음에 계획이 있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백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열흘을 계획하고 열 달을 계획하고 10년을 고생스럽게 계획하여 내어 놓았어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연구는 되지 못합니다. '바람 같다'는 말은 아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는 말은 세계에 사는 백성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자신의 질병문제, 전쟁문제, 죄악문제, 영혼의 구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3) 환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19절)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게 계획한 것을 발표해도 그것은 바람과 같이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잠을 못자면서 연구하여 이튿날 아침에 특별 담화를 발표해도 백성의 마음에 위로도 기쁨도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원수 18만 5천 명을 처치해 버리시니까 죽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뭐야? 앗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 나가 보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정말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앗수르 군대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양식을 싣고 들어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인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그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19절)

'이슬'이란 말은 은혜이고 '빛난 이슬'은 가치있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조용히 심령들 속에 깊숙히 스며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에 해골들이 뒹구는데 살은 다 물이 되고 힘줄은 다 없어졌고 남은 것은 마른 뼈뿐입니다. 희망이 없는 해골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것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거두어지면 인간이 아무리 떠들어도 망신만 남습니다. 환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일을 성공하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4) 환난을 당할 때에는 숨어야 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쌓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20, 21절)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숨어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을 잠그라는 명령대로 문을 잠궜습니다. 문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대로 문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 애굽의 바로 왕의 맏아들로부터 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새끼를 일시에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문 밖에 나가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숨으라면 숨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어 놓으시면 그때에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서 숨어야 할 때에 숨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필 숨어 있나? 나가 보자' 하면서 교만하게 나간 사람은 죽습니다. 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숨는 사람도 안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난은 자신의 잘못으로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더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성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였을지라도 환난은 당했을 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 속에 억만 가지 계획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를 것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외부에서 환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가만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가 풀리고 악한 자를 벌하실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를 방주에서 끌어내었듯이 어느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때를 잘 넘겨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김 성 관 목사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마가복음 12:34)

"멀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너무 먼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과 믿음, 회개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중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들 중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극렬히 대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놀라게 하는 것을 불신하면서 강하게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절정에서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많은 무리들에게 진정한 구세주의 의미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참으로 놀라울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계속되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본문의 12장에서도 그리스도께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두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대적자들과 달랐던 서기관

그들 중 한 서기관은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28절).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29-31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32-33절).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한 영혼의 소유자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정직한 선생이었고 솔직한 학생이며 정당한 논쟁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큰 명예나 형식적인 예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교리만을 내세우는 도덕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실천하려는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서기관은 때에 합당한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대답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른 그의 발언은 옳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34절). 오늘의 메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본문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거듭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21).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7).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 1: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나라에서 멀지 않기보다는 그 나라에 속해야 함

본문의 서기관은 그 나라의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지 않다는 것'은 '먼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나 아직 하나님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합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눈 앞에 계신 그분, 진정한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 깊이 믿었더라면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데에 그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예수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지옥에 속한 것인지에 관한 일입니다. '영생'과 '진노 속에 임할 죽음'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나라에 속하는 한 걸음을

본문의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다른 이들보다 앞서 있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의 차이점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단지 한 걸음이 더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 한 걸음이 전부가 되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모두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공백 이후 나타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후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4:17).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충현의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이 모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참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회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멀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너무 먼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과 믿음, 회개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수단팀 선교 보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슬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영 신
(수단 단기선교팀)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7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니 신자라는 지방에 여러 난민촌이 있었다.

여기저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흰 옷을 입고 일렬로 서서 절을 하는 남자들의 모습. 우리 일행을 마중 나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알아보니 기도하러 갔다 한다. 기도 시간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비록 모슬렘이지만 번번이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우리가 선물로 가져갔던 확성기는 그야말로 인기였다. 7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손뼉 치며 찬양하는 현지 크리스천들의 모습. 비록 하루 두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그 모습에는 해맑은 미소가 있었다.

신자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난민촌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혹시 열성파 모슬렘들이 습격할지도 모르기에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숙소를 정하기 위해 길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모슬렘들과 악수하며 "예수아 비험박"(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했다. 함께 갔던 최지영 자매와 "카리반 민카야 람비"(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자 다른 현지인 자매(크리스천 형제와 결혼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지만 집안의 보복이 두려워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자매)가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이튿날 아침 빈민촌에 들어가 현지인 한명씩과 짝을 지어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했다. 썬크림으로 햇빛을 차단했지만 노출된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43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 사역을 했다. 오후에는 전체 집회로 각 교회학교 별로 찬양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새신자와 함께 영접기도를 드렸다.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렸다. 오랜 가뭄 가운데 내린 비였기에 그들에겐 축복의 비였다.

나와 짝이었던 현지인 자매는 41세로 자녀가 6명이나 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이름은 아톰이었는데 정말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계속 전도를 하던 중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 둘러보니 어떤 여자들이 한 아이를 들어 지붕 위에다 올려 놓히는 것이 아닌가. 아톰이 달려가 그 아이를 붙잡고 몇 명의 크리스천이 함께 통성 기도를 했다. 그 아이의 검은 눈동자는 위로 올라가 있었고 거의 절식한 모습이었기에 묻지 않아도 상태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도가 끝난 뒤 보니 아이의 눈은 정상이 되었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되었다. 주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이를 건네준 아톰 자매 치마는 그 애의 배설물이 홍건히 묻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기쁨의 환한 미소뿐이었다.

△ 수단의 신자 지역에서의 한 집회. 단기선교팀이 선물로 가지고 간 확성기는 사역 기간 중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특히 현지 사역자들은 하루 종일 확성기를 들고 찬양하곤 했다.

가몸에 땅이 갈라 진 것처럼 몇 겹으로 갈라진 다리, 비쩍 마른 체격에 배만 불룩하게 나온 아이들과 여자들. 그들의 배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태어난 지 몇 달이 채 안된 아이에게 줄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면서 기도 부탁하는 어떤 여인.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앉은뱅이들. 굶주림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들. 그들을 보며 2000년 전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던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했다. 내게도 그런 사랑의 손을 주시기를.

저녁에는 영화 상영 ('예수')이 있었다.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마을 공터로 나와 앉았고 3미터 높이의 흙벽에 하얀 천을 깔아 임시 스크린을 만들었다. 영화가 상영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만 등장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중간에 필름이 끊기고 전기(소형발전기)가 나가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이 영화는 이곳에서만 3일 연속으로 상영됐는데 그때마다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단은 무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찬양 중 율동은 없고 발로 박자만 맞출 뿐이었다. 그들에게 호산나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주자 얼마나 좋아하던지.

4일간의 일정 동안 우리와 동행했던 모슬렘인 버스 운전수와 그의 조수는 카르툼으로 귀향할 때는 인사가 달라져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아 비험박"(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들이 비록 모슬렘이지만 우리 사역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느끼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너무나 감격하여 수단어 성경을 두 권 사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조수는 버스에 앉기만 하면 성경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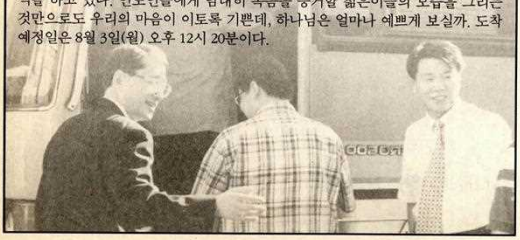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모슬렘에게 우리 크리스천이 할 일은 논쟁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 모슬렘 개종자가 고백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된 크리스천의 사랑을 보여 주면 모슬렘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그의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예수님 사랑의 능력을 느꼈다. 우리가 머나먼 한국에서 수단까지 온 것도 결국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는가. 수단 카르툼과 신자에서의 사역은 나와 모든 대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수단의 복음 사역과 우리 교회의 앞날에 넘치고 넘치기를 기도한다.

단기선교 이모저모

스리랑카 단기선교팀이 30일(목) 오후 4시 35분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다. 건강한 모습의 단기선교팀원을 보며 스리랑카에서 보고 겪은 복음의 능력이 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몽골 단기선교팀이 28일(화) 오전 6시 30분 교회를 출발, 9시 10분 비행기로 선교지인 몽골을 향하여 떠났다. 청년1부가 주축이 된 몽골 단기선교팀은 김필수 목사를 지도로, 임무천 장로를 단장으로 하여 총 12명의 대원이 출발했다. 귀국 예정일은 8월 4일(화) 오후 5시 35분이다.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부가 주축이 된 인도 단기선교팀이 무사히 도착하여 3개팀으로 나뉘어 사역을 하고 있다. 인도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도착 예정일은 8월 3일(월) 오후 12시 20분이다.



하나님의 의와 지혜가 드러나도록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오 현 정
(중국2팀 팀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중국단기선교를 가게 되었다. 요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낀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와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도들의 행적,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그 감동의 물결들이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내게도 전해진다. 바울의 1차 전도의 생생한 감동은 이번 중국 선교 여행이 내 인생의 제1차 여행임을 알게 했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지혜만 드러나고, 나는 그것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감사하는 기도 시간이 참 즐겁다. 예전에 미처 느껴지 못했던 그 맛이다. 만약 나의 어린 자녀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나는 아마 갈 곳에 아는 사람마다 연락망을 통해 내 자녀를 부탁하고 배낭에 넣을 짐 하나하나를 같이 체크하고 떠나기 전까지 체력 훈련, 음식 조절 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신경을 쓸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발걸음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우리팀 구성원 모두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중국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쁨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좋은 팀웍으로 오늘날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누리길 기도드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풀무불 지체들과 함께-

김 종 욱(대학부 2학년)

사무엘서에 나오는 두 왕 사울과 다윗은 재위시절 각각 나라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은 세속적인 방법, 즉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자신과 그 아들들이 죽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3년 기근의 재난(삼하 21장)을 맞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진학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예민한 문제이지요.

친구의 초대로 풀무불 지체들(목목히 믿음으로 대학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지체들의 모임)과 함께 강촌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 즐거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마지막에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받는 그 모습에 어려운 일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주 근심에 빠지던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긴 신앙의 선배들의 성숙된 모습에서 제2의 욥을 만드시며, 섭리하시며, 연단 중의 형제 · 자매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이라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두심으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체들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목회자를 찾거나 우리 풀무불의 지체들을 찾아 도움을 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무불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그 자체로 큰 권면과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중보하고,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소개함으로써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풀무불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윗처럼, 풀무불 지체들처럼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인의 방학생활

윤 정 훈(대학부 7학년, 군복무중)

멋진 방학생활을 꿈꾸는 충현 대학부 지체들이여!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맞게 되는 방학생활은 무척 설레이는 시간들이다. 방학이란 새내기들에게는 새내기 나름대로의 도전과 체험들을 즐기는 시간이며, 졸업을 앞 둔 이들에겐 사회를 헤쳐나갈 날개를 만드는 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방학생활의 모양들은 스스로를 위해 보내는 시간들로 채워진다. 여러분의 방학 생활은 어떤가? 물론 빼곡히 채워진 시간표에는 갖가지 자기 계발 프로그램이 그려져 있으리라. 물론 좋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당신이 얼마나 크고 깊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신앙인들은 큰 일을 해낸다.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그런 신앙을 소유하였다면 더욱 적절히, 그리고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것이다.

대학부에서는 이를 위해 수련회, 선교여행, 전도모임 등 여러 기회들을 만들어 두었다. 하지만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그런 기회는 결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일로 끝날 것이다. 비록 자신은 방학 동안 많은 자기 계발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얼마나 불행한 기독인인가? 부디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열매를 위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두길 바란다.

젊은 기독 지성인은 부딪혀야 한다. 때로 자신의 기득권과 이로운 여건들을 포기하고 접어두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만나게 될 이 거대한 사회는 너무도 악하고 반기독교적 문화와 사고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회를 이겨나갈 힘은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믿음이며 신앙적 결단과 용기인 것이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부흥의 시간들로 빼곡히 채워지는 멋진 기독 지성인의 방학생활이 되길 소망한다.

여호수아서는 재미있다 I

강 석 진(7학년)

여호수아를 읽으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담대하라'. 연약한 제게 늘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담대함이 현실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하지요.

여호수아를 읽으면 참으로 신실하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신명기 31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31:7 에도 모세가 같은 말을 했군요(신 31:7;수 1:6), 그리고 백성들마저 1:18에서 담대할 것을 말합니다. 온통 담대함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또 지도자를 통해서, 또 백성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양육함을 봅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도 생각해봅니다. 여호수아가 꽤 담대하지 못했거나 혹은 담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던가?)

5:15-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랜 기간동안 모세와 다니며 모세가 자기의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겪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양육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을 좀 봅시다.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2:9-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 가나안을 사전에 방문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군들은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상대는 어떤가요?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물론 히브리 표현에 과장이 좀 많은것이 있다지만.

그간의 변화는? 역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놓으셨군요. 미리 뒷부분을 볼까요?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11:21)' . 민수기 13:33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25-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같이 하시리라' 42-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2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서에 적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멋져' 보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상대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며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 말입니다. 아이성에서 아간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지만 계속 연전 연승. 여호수아 내내 전쟁마다 이기고 온갖 연합군이 와도 승리합니다. 오히려 하루 해가 짧아서 더 승리 못할 정도가 되자 해를 하늘에 고정시켜둔 채로 승리할 정도로 '멋집니다' .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적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다릅니다. 그것은 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통 싸우시는 하나님을 적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왜 안싸우냐고 독촉을 합니다. 17:18-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방치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 18: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참 많이 담대해졌지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는지 알겠지요? 여호수아에겐 처음부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알았지요.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7: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리 힘들니까?' 그것은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겁니다. 엎드려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꼭 하나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아~ 살기 정말 힘들다.' 혼자서 살려고 하니깐 그런겁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니깐 힘이 드는겁니다. 같이 하세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

제가 좋아하는 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 , '안될 것 같은데 되는 일' 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 자신의 일을 하든, 잘 안되고 힘들면 짐을 들어 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됩니다. '될꺼 같은데 안 되는 일' 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면 됩니다. '안 될꺼 같은데 되는 일' 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

중부 전선 최전방 선봉부대에 복음의 씨앗 뿌리다

박 철 구
(집사, 12교구)

12교구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소재 중부전선 6사단 2연대 군인교회(군목 설진환 목사)로 정하고 전형준 목사 외 8명의 집사들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부흥집회, 군장병 위문, 신앙 수련회, 전중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6사단 2연대는 6·25 초반 북한군의 남침시 육탄으로 적의 탱크를 막던 부대이며, 북진시는 제일 먼저 압록강 물을 떠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대로 지금도 육군내 가장 선봉 연대로서 철원 축선의 전방 GOP 철책을 맡아 지키는 최정예 부대이다. 지휘관, 사병 모두가 전군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로 조직되어 있고, 3,000여명의 병력 중 50%가 신자이다. 교회는 연대교회와 각 대대교회 3개처가 있었고 부대내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아름답게 우뚝 서 있었다. 그 중에 1대대 기드온교회는 전 목사께서 군목 재직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도로써 설립한 교회이며, 3대대 교회인 임마누엘교회와 더불어 군인교회로서는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우리 전도대는 위문품으로 레이저프린터 2대, 초컬릿, 수박, 음료수 등 간식과 서예작품 등을 준비하여 갔다. 3개 대대에서 3번의 부흥 집회와 2번의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1,07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하였으며 49명의 귀중한 영혼이 진중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장병들이 모두 대학을 다니는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로 설교와 강의에 큰 감명을 받았고 신자들은 신앙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타종교 신자와 무종교 사병들도 심령에 큰 변화가 생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별히 함께 가신 남녀 집사님들은 아들과 같은 장병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간식을 나누어 주고 위로 격려하였으며 세례받은 49명의 사병들에게는 개인 신앙 상담을 하여 주고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장마 속에서도 전도 활동 기간 동안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고, 봉고차의 기어가 고장나서 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험난한 산골길을 사고없이 다녀왔고 시간을 내어 철원군 동송읍내를 둘면서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하고 최전방 철책선과 땅굴 등을 시찰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왔다. 특별히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빽빽히 짜여진 일정 속에 말씀으로 대언하신 지도 목사님의 젊고 패기있는 모습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말씀은 장병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같이 가신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정성어린 위문은 조국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권사님들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부러워요

박 영 선
(집사, 7교구)

충현교회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유난히 많이 눈에 뜨인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주일날 예배당 뜨락을 오가며 바쁜 걸음에 그저 스쳐 지나갔던 할머니들.

아! 그 할머니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권사님들인 것이다. 충현교회의 많은 예배(김성관 목사님 말씀대로 지구에서 발이 떨어지는 영적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많은 권사님들을 뵙게 된다.

지난 청지기훈련때 달랑 찬송가만 들고 3박 4일을 꼬박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들의 순종의 믿음, 주일날 땡볕에 지팡이 걸음으로 교회로 향하시는 발걸음,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음성, 주일 오후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로 열광하시는 그 열정. 그 모든 수고와 인내의 열매로 이제야 복음을 깨달아가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놀라운 사실에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없었으면 늘씬한 젊은 여인들을 보면서 젊음을 잃어가며 슬며시 애타했을 내게 이젠 젊음보다는 권사님들이 가장 부러운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 어려운(예수님이 주인되시기까지) 세월 다 보내시고 이젠 몸과 맘을 다 드려 그 찬란한 영혼으로 온전히 조금만 견디시면 그토록 그리운 예수님 얼굴 뵈올 우리들의 권사님. 권사님들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부러워요.

낙도전도를 다녀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배 찬 희
(고등부)

처음에 '낙도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한 귀로 흘렸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을 이끄셨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화도'였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거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거제도에 가는 시간만 해도 8시간이 걸렸다. 고정 자세로 앉아만 있던 터라 몸이 많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낙도에 대한 기대와 전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4박 5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축호노방 전도'였다. 전도는 2인 1조가 되어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 4영리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고 연습도 해보았다. 그리고 기도로 출발했다. 한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왠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담대함을 달라고.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이셨고 그 다음부터 우리들 스스로 집집마다 들어가 4영리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 주님께 기도한 후 복음을 전했다.

먼저 혼자 계신 할아버지께 4영리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처음이라 긴장되었고 어떻게 말해야지 그분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또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땀이 비오듯 흘러 내렸다. 4원리까지 설명해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엔 대답이 없으셨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할아버지께 정로환과 팜플렛을 드리고 나오는 기분은 이루말할 수 없이 기뻤다. 조금씩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집으로 옮겨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믿고 싶지만 집안이 불교라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믿으면 뭐가 좋으냐, 정말 천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필요없다며 무시하고 내쫓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더 전하고 싶었다. 그분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나갔을 때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충고, 선배·친구들의 도움과 주님의 큰 보살핌이 있었기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본다.

우리 조는 전도 외에도 그곳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성경학교의 진행도 맡았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아이들과 우리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낙도 전도를 통해 주님은 늘 곁에 계셨고 필요할 때면 무엇이든지 풍족히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 말로만 듣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회를 시점으로 화도교회와 어구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영원하기를 기도드린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주님의 어린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농어촌전도대와 해외 단기선교팀의 사역이 한창인 요즘 영아부에서는 헌신 초청의 시간을 마련하여 아기들이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들은 아빠, 엄마의 소유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빠, 엄마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또한 2부순서시간에는 아빠들의 찬양을 들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빠들이 영아 교육에 참여함을 감사하였고, 지속적인 적극 참여를 부탁드렸다. (송혜경 통신원)

유치부
"죽죽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충현교회갑니다."

빗소리 가운데 유치부 어린이들의 찬양이 더욱 힘찬 주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햇빛 뜨거운데, 바람부는데, 눈이오는데 … 늘 주의 집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축복받은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주시길 기도합니다. 2부 성경동화 시간에는 "아빠! 왜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바보처럼 … 그렇지 않으면 에덴동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을텐데 …" "그건 네가 아빠와의 작은 약속도 지키기 힘든 것처럼 아담도 약속을 지키기 힘들었단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부모님과 어떤 약속을 하나요? 우리는 작은 약속도 지키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진지한 어린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에는 유치부 찬양대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중등1부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름수련회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7월 23-25일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사진).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을 통해 읽은 시편 1-105편, 사무엘상, 사무엘하 1-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렵고 지겨우리라 생각되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흥회와 산상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긴 시간 성경 읽는 것이 중등1부 학생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모두 기쁨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정혜미 통신원)

중등2부
주님,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가 방문한 장애인 수용시설 나그네의 집은 제반 시설도 열악하고 묵고 있는 식구들도 이십대 이상의 남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첫눈에도 학생들이 그들과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워보였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접근해야 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망설이고 있는데 어둡고 지저분해 보이는 장애인 숙소 한 가운데에 계시는 집사님이 눈에 띈 것이다. 그것도 그들 가운데 벌떡 누워서 하나가 되신 장애가족으로 말이다. 어느새 나도, 함께 가신 집사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하나가 되더니 철없이 날뛰던 우리 학생들까지, 그들의 등을 밀면서, 머리를 감기면서, 배설물이 묻은 속옷을 손으로 빨면서 하나임을 보여 주었다. 한사랑마을이나 라파엘의 집, 어린양의 집을 방문한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으리라. 일기예보와는 달리 맑은 날씨 속에서 그들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분명 별난 만남이었으리라. 짐을 챙겨 떠나오면서, 버스에 실려 교회를 향하면서, 또 찬양과 부흥회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뿔뿔히 흩어져서 집으로 향하면서 마음 속으로 이렇게 외쳤으리라 확신한다. "주님! 예수님, 감사해요!" (나성애 통신원)

15교구
농어촌 전도지는 사랑의 실습현장

♬ 아침해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

차령산맥 중에서 가장 큰 산 치악산 서쪽 자락에 자리잡은 삼복골 반석교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교가가 낭낭하게 녹음 짙은 산과 들, 파란 하늘로 밝게 울려 퍼진다. 7월 20-23일 15교구 농어촌 전도대의 봉사 현장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와 같이 하나 되어 섬기는 귀한 사랑의 실습현장이었다. 기록, 진행, 학습, 봉사, 미용, 침술, 각 분과별로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 각자 맡은 일에 힘을 쏟고 있었다. 총 39호의 가옥으로 이뤄진 마을. 그중 10호가 교인 가정이며, 교인수가 20여명 남짓한 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수가 12명인데 성경학교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나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교사들을 주목하고 있다. 가족 같은 마을의 특성상 조직화되고 훈련된 전도 방법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의 관계 전도가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미용과 침술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놓았다. 초청전도집회에 뽀글뽀글 상큼한 퍼머머리의 아주머니들과 깔끔해진 머리의 아저씨들, 침 맞으신 분들이 참석하여 이 작은 마을에 결신자(어린이 8명, 어른 9명)가 새로 생겨 그야말로 동네잔치가 되었다. (한숙정 통신원)

사랑의 책을 보내 주세요

교정전도회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한 두권씩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정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회원 및 교우 여러분께서 마음에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을 교정전도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한 책이 없으시다면 도서상품권이나 지정회비로도 책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으니 많은 호응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 정 전 도 회

탐방 - 교구사무실

교구 행정의 중심지

"신앙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선교관 1층 102호는 교구사무실이다. 이곳은 주일마다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교구 행정과 교구 모임시 안내와 교구 소식지 전달, 교구 일꾼 참석자 확인과 성경통신강좌 점수 기록, 주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교구장과 교역자들이 주일이면 각각 다른 부서의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교구 성도들과 일꾼들,구역장들을 만나 구역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므로 이곳에서 서로 연결이 되도록 교구 행정을 맡아보고 있다. 구역에 관한 구역 보고서를 받고 모든 유인물들을 구역장에게 전달한다. 이 유인물들은 매달 발행하는 충현의 만나, 교회요람, 남성도 구역 공과 등이다. 그리고 성경통신강좌와 선교회비를 낸 성도들의 선교회비 봉투와 각 전도회에서 전하려하는 유인물들과 새신자 환영회에 관한 것들을 전달한다. 또한 자신의 소속과 교적번호를 알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 준다. 학습과 세례 점수를 받는 것과 교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유인물들을 전달하는 일들도 이곳에서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교구는 교구위원회 안에 교구장과 교구 남·녀 교역자, 지역장 143명, 부지역장 495명, 협력장 508명, 구역장 784명, 남성도 구역장 188명 등의 교구일꾼으로 편성되어 있고, 786구역의 남성 구역 188개가 있다. 그리고 교구사무실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각 교구별로 간사 2명씩으로 19교구 모두 합쳐 39명의 간사 집사들과 총 책임을 맡은 총무 간사 1명이다. 이들은 우리 교회 집사로서 교구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구사무실에는 1부예배가 끝난 후부터 저녁 찬양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활기가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모두 모여 매주일 기도회를 가진 후 각 교구 교역자의 지시를 받고 총무 간사는 교구위원회의 위원장 및 교구 지도목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들을 그때까지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사들이 이 시간 중 아무 때나 찾아오는 교구 식구들에게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반기기 때문이다.

교구사무실에서는 교구간사로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의 봉사자로 거듭나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도 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글 / 박주영 기자, 사진 / 이운구 기자)

교회 소식

❀알 림

1.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교육 안내 /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아래 교육일정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오늘 15:00-16:50, 8월 9일(다음 주일) 15:00-15:40
· 문답: 8월 9일(다음 주일) 15:50-16:30, 각 교구별 장소
· 교육장소: 교육관 314호(학습), 307호(세례), 310호(유아세례)
*학습, 세례식: 8월 16일(주일) 찬양예배시, 본당
*유아세례식: 8월 16일(주일) 15:00, 갈릴리홀
2. 농어촌 하기전도대 / · 대학부 시심나(3일~6일, 성은교회), 봉공방(3일~6일, 새생명교회)
· 청년1부 5팀(2일~6일, 서화교회), 6팀(2일~6일, 곤리교회)
· 1교구(5일~6일, 행구교회) · 2교구(3일~5일, 미산교회)
· 5교구(3일~6일, 새중앙교회)
3. 해외 단기선교팀 / · 인도(7월 23일~8월 3일) · 몽골(7월 28일~8월 4일)
· 중국2팀(7일(금)~13일(목))
4.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 · 고등부(3일~6일, 충현기도원)
5. 에바다부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 16일(주일) 15:00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 문의: 에바다부 교사실
· 기간: 16주 · 과정(주일, 수요반): 초급, 중급, 고급, 통역
6. 시청각실 초등학생용 교육자료 수집 / 시청각실에서는 가정에서 보지 않는 책과 성서에 관한 비디오테잎등을 수집합니다.
· 수집처: 교육관 209호(주일 10:00~16:00)
7. 크로마하프 · 만도린 대원 모집 / 초보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문의: 크로마하프-김옥순 집사(548-6916), 만도린-이연순 집사(3463-0434)
· 기간: 8월 13일~10월말 · 연습: 매주 목요일 9:00-10:30, 나사렛홀

❀모 임

1. 정기당회 / 5일(수) II부예배 후, 당회실
2. 정로 화요새벽기도회 / 4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3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4. 건축위원회 모임 / 오늘 15:00, 사무국
5.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6. 남녀전도부 각교구 연합회장,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홀
7.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리홀
8.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교사 모임 / 7일(금) 18:00, 교정전도회실
9.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부 예배실
10.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6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11. 경찰전도회 월례회 / 9일(다음 주일) 15:00, 갈릴홀
12.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314호
13. 권사회 제1지회 월례회 / 5일(수) I 부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1. 베드로 2 / 9일(다음 주일) 15:00, 학원전도회실
2. 미리아 3 / 7일(금) 11:00, 사랑부 교사실
3. 미리아14 / 9일(다음 주일) II부예배 후, 칼빈홀

❀별 세

1. 강승옥 집사(방어순 권사 남편, 강순희 권사 부친, 김단용 장로 장인, 제14교구 목동3구역) / 23일 별세, 25일 장례
2. 정길복 집사(지영실 권사 남편, 정홍식 장로, 정홍관 집사 부친, 조남숙 집사, 유효성 집사 시부, 제11교구 동이촌구역) / 25일 별세, 27일 장례
3. 이자원 장로(변홍순 성도 남편, 이복희 권사 부친, 손경수 장로 장인, 제7교구 장미1구역) / 27일 별세, 29일 장례
4. 김동준 성도(김영숙 성도 남편, 제2교구 삼익1구역) / 30일 별세, 9월 1일 장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봉미자 집사, 박준성 성도 / 노원구 상계1동 극동A. 104-1002, 전화: 933-1780

영상(비디오) 직원 모집

충현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음영실에서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세례를 받은 26세 미만의 남자
2. 근무직 - 영상직 1명
① 전자 · 전기 계통의 이수자
② 촬영과 편집의 경험자
③ PC사용 가능자
④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기소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교환 402번)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56	송혜정	1	청년2부	장명철(11)	1272	이주희	19	대학부	김영희(12)	1288	허숙현	19	고등부	
1257	송기경	1	청년2부		1273	홍경희	19	사랑부	오광식(19)	1289	최인영	19	고등부	
1258	이우민	2	청년2부	안영희(4)	1274	명지윤	19	중등부		1290	윤경원	19	고등부	
1259	김현주	2	청년2부	한재순(2)	1275	이주희	19	중등부		1291	정준섭	19	고등부	이형남(14)
1260	이양원	19	청년1부	강순금(6)	1276	이명숙	19	고등부		1292	김극현	19	대학부	강순금(6)
1261	정영한	3	청년1부		1277	이수진	19	고등부	이진규(7)	1293	김경수	19	대학부	
1262	이영주	3	청년1부		1278	정아름	19	고등부		1294	김태현	19	대학부	신용석(19)
1263	오홍섭	3	청년1부		1279	나은현	19	고등부		1295	곽연아	19	대학부	
1264	곽수진	3	청년2부		1280	문진하	19	고등부	이세영(15)	1296	윤희원	19	대학부	
1265	손기열	8	소망부	전용해(8)	1281	정효준	19	고등부		1297	송의자	4	에스더	
1266	김순순	11	청년2부	박윤석(8)	1282	박수옥	19	고등부		1298	권순효	6	소망부	최영자(6)
1267	박미란	11	청년2부	박윤석(8)	1283	김영주	19	고등부	정준(4)	1299	김정원	19	청년2부	김은영(13)
1268	박미숙	11	청년2부	박윤석(8)	1284	이태규	19	고등부		1300	손윤아	19	중등부	
1269	김미자	13	청년2부		1285	지윤화	19	고등부	고범석(6)	1301	김상엽	19	대학부	
1270	김혁중	14	청년2부	김점순(3)	1286	성수예	19	고등부	이영우(7)	1302	김성미	15	청년부	
1271	조지원	15	청년2부		1287	최재훈	19	고등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1 김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동어촌전도대와 단기선교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루며 그 사역을 볼들어 주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3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임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소서.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소서.
6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각 부서가 은혜롭게 하시며 교사들에게 영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7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8 학습, 세례, 유아세례, 개종 및 입교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 강도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석 김창중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후찬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편신도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북한 소

임 통 개(집사, 1교구)

야경에 벌어진 북녘을 향한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들의 행렬은 어떤 일보다도 장관을 이루었다. 나의 고향은 부산이라 실감은 못하지만 진정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겐 너무도 설레이는 날이며, 시간이었으랴. 소들을 따라서 살아 생전에 한 번 가고픈,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고향, 바쁘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지워질 수 없는 고향의 향수, 매스컴을 통해서 나의 마음도 안타까움과 분단의 아픔을 느껴볼 수 있는 목이 메이는 시간이었다. 고향을 두고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경에 실향민 특히 혈혈단신으로 피란하신 어른들의 그리움은 무슨 말로 위로드릴 수 있으랴.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팀의 깃발이 오른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녘에 사는 것과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을 들고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선교팀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 군사분계선을 넘듯이 죄와 사망을 태우고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기를 염원한다. 방북된 소를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며, 평화의 초석되길 기원하듯이 선교팀이 들고 간 복음이 죄와 사람의 관계를 씻어 주어 이렇게 고향에 가보고 싶은 것처럼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고향 천국에도 모두 함께 가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들뿐 아니라 복음이 북한 땅을 온통 뒤덮는 날을 간절히 손꼽아 본다.

교회 주변 도로 일방통행 안내도

지난 5월부터 교회 주변 도로의 일부가 일방통행로로 변경되었다. 안내도를 참고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겠다.

8월 9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첼로 오경남(임마누엘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내 주를 가까이
· 내 평생에 가는 길
· 주기도문
·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 목마른 사슴

❖ 3부예배
할렐루아목관5중주(할렐루아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주는 우리를 지키시네
· 예수님이 좋은걸
·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 4부 · 5부예배
벧엘 솔로이스트들(벧엘찬양대)
〈찬양곡목〉
·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찬 321장) — 조수진
· 나 주의 도움 받고자(찬 349장) — 안설희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 465장) — 윤지영
· 내 주여 뜻대로(찬 431장) — 이미리